

6. 태국, 과도한 염분섭취에 제동을 걸다

방콕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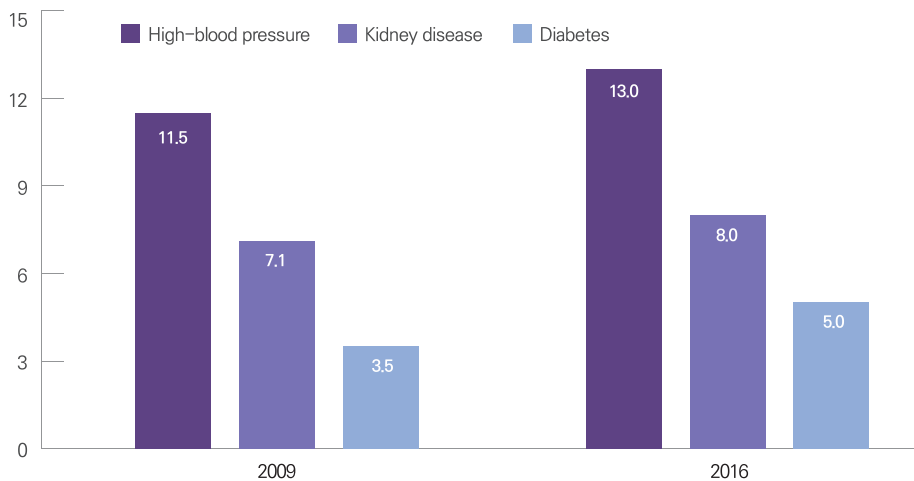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

▶ 태국인, 일일 소금 섭취량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다

- 태국인들의 소금 섭취량은 일일 권장량의 2배를 뛰어넘고 있다. 이는 인스턴트식품(라면, 냉동식품, 쌀죽), 스낵(생선포, 감자칩 및 가공/튀긴 해조류) 및 다량의 조미료가 첨가되는 수많은 식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.
- 게다가 태국인들은 이미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에 조미료를 추가로 첨가해 먹는 것을 즐긴다. 이와 같이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, 신장질환, 당뇨병,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태국은 2009~2016년도 사이에 이러한 질병의 환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2016년도 정부의 의료보전 비용은 1,500억 바트(한화 약 5조 1,500억)를 기록했다.

| 태국 고혈압, 신장 질환, 당뇨병 환자 수 |

(단위 : 백만 명)



* 출처 : Food Focus Thailand

▶ 국민의 건강을 위해 태국 정부가 손을 걷어 부치다

-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소비자들의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해 왔다. 그 중 대표적으로 건강 캠페인과 올바른 라벨링 표시를 장려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식품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했으나, 이러한 방법들은 체감할 만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.
- 이로써 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(WHO)의 건강 지표에 따라 2025년까지 태국의 평균 소금 소비량을 30% 줄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2016~2025년 동안 소금 소비량 감소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.

- 태국 정부의 소금 섭취량 30% 감소 계획에는 과도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튀긴/구운 감자칩, 튀긴/구운 팝콘, 쌀 튀김/압출 스낵(extruded snack), 크래커/비스킷, 크림 과자에 일일 영양분 권장량 의무표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. 또한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‘Healthy Choice Logo’제도를 시행하였다.

▶ 소금세 도입 가능성

- 태국 정부는 식품업체들의 협력을 통해 가공식품의 소금 함량을 줄이는 ‘가공식품 개혁’을 검토 중이다. 처음에는 인스턴트식품 및 조미료 제품과 같은 식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. 만약, 식품업체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당국은 각 식품의 소금 함량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,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과도한 소금 함량에 대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.
- 현재 과도한 소금 섭취의 위험을 인식하고 전 세계 75개국에서 소금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. 그 중 영국은 2006년 식품회사들과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해 소금 소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였으나, 그 외에 헝가리, 포르투갈, 피지공화국에서는 소금세를 적용하고 있다.

| 소금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|

국가	헝가리	포르투갈	피지
발효시기	2011	2012	2012
세금부과 대상	소금 함량이 높은 스낵과 양념류	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	MSG
세금적용 기준	100g당 5g 초과시	비 가공식품 감세적용	-
과세율	kg당 0.8유로	23% (6%)	32%

* 출처 : KResearch

* 참고자료

- Food Focus Thailand 3월호

시사점

- 실제로 태국의 길거리 음식, 식당 음식 및 가공식품들은 맛이 매우 강렬하다. 한국 가공식품에 비해 버터, 설탕, 소금 등의 조미료가 훨씬 더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한국 식품 맛을 볼 때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. 하지만 설탕 및 소금 등의 조미료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우며 태국인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.
- 태국 정부의 설탕세, 소금 섭취 감소 정책 등의 주 목표는 막대한 의료보전 비용 절감이며,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은 강화될 것이다.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추가되고, 강화됨으로써 태국 내 한국식품의 경쟁력 또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.